

다해·제2311호

주님 봉헌 축일 · 축성 생활의 날

2025년 2월 2일



조반니 벨리니 <시메온의 노래>

1510년경, 패널에 오일, 티센보르네미차 미술관, 스페인



춘천교주보

목 차

02 말씀의 향기
나는 무엇을 봉헌해야 하나?

03 사제 단상
웃음과 위로의 수녀님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⁴

05 열린 마당
신간 도서 소개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말라 3,1-4

화답송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제2독서

히브 2,14-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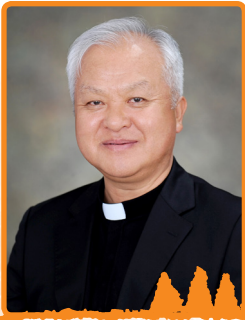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루카 2,22-40 <또는 2,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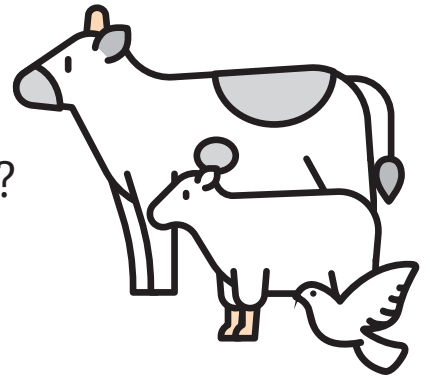
영성체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정귀철 베네딕토 신부
거진 본당 주임

나는 무엇을 봉헌해야 하나?



오 늘은 주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성전에 예수님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봉헌은 왜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명한 대로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 곧 태를 땀 먼저 열고 나온 첫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탈출 13,1-2)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노예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봉헌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탈출은 이집트인들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의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는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아담의 아들 카인과 아벨의 제사(창세 4,3-5 참조)에서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셨다고 나옵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진 양 중에서 맏배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지만 카인은 자신의 소출 중에서 좋은 것을 바치지 않았나 봅니다. 탈무드에서는 카인이 봉헌한 제물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카인이 농사지은 것 중에서 일등품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쓸모없는 파치를 바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봉헌 제물의 의미는 어떠했을까요?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는 인신 공양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두려워하였고 자연의 여러 현상들이 신의 조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을 노엽게 하면 그 벌로써 자연재해나 흉년이 닥친다고 생각하였고 그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가장 귀한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그저 신을 향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봉헌은 두려움의 봉헌이 아니라 감사의 봉헌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부자라면 소와 양을 바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는 것입니다(레위 12,8 참조).

이러한 봉헌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은총이기에 감사해야 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의 봉헌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서 그녀가 렘톤 두 닢을 넣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생할비 모두를 넣은 것이라 하시면서 그녀를 극찬하셨습니다(마르 12,41-44 참조)(루카 21,1-4 참조). 그녀는 생명을 바친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감사의 봉헌 제물로 어떤 것을 바치고 있나요?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아벨이나 가난한 과부,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성경은 하느님 백성이 모인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생겨났기에 “성경의 본래적 자리는 교회의 삶 자체”(주님의 말씀 29항)입니다.

그림출처/ 바오로딸콘텐츠



웃음과 위로의 수녀님

신 학생 때, 제가 속한 본당에 계시던 수녀님은 참으로 불쌍하셨습니다. 당시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웬일인지 수녀님들을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걸핏하면 미사 강론 시간에 교우들이 듣는 앞에서 수녀님들을 혼내기 일쑤였고, 정말인지 모르겠으나 소문에 의하면, 한겨울에 수녀원에 난방을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수녀님들을 골탕 먹이시려구요.

당시에 저희 본당에는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신부님께서 신학생들이 수녀님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셔서, 정답게 말씀 한번 나누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방학을 해서 본당에 가면 수녀님들께서 저희 신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학사님들, 수녀원에서 밥 한번 대접해야 하는데...” 하시며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고는 하셨습니다. 저희도 수녀원에 가서 밥 얻어먹으면 신학교에서 잘리는 줄 알고, 한 번도 얻어먹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장상 수녀님께 말씀드려서 그 본당을 떠나든지 야반도주하든지 할 텐데, 웬일인지 그 수녀님들께서는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계셨고, 본당 신부님께서 야단치실 때도 처음에 살짝 당황하실 뿐 화를 내시거나 반박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교우들이 안타까워서 수녀님들을 위로해 드려도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밥은 못 주셔도 신부님의 눈을 피해 저희에게 슬쩍 과자나 사탕을 주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물론 수녀님들을 포함한 많은 본당 식구들이 입학식에 오셨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저만 신학교에 남겨놓고 버스에 올라서 돌아가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원장 수녀님께서 생전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야단치셨다고 하네요. “하느님께 아들을 봉헌하신 기쁜 날인데, 왜 그렇게 우세요!” 라구요. 사실은 야단을 치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시자, 수녀님께서도 같이 붙잡고 우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봉헌되신 아기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봉헌하여 축성 생활을 하시는 모든 수도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수사님, 수녀님들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께 의지하여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슬피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 가운데서 이러한 수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바치기

오귀스트 로댕 <지옥의 문>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⁴

사심판, 천국, 연옥, 지옥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장례미사 때 우리는 감사송에서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라 노래합니다. 부활의 희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두려움보다 희망으로 가득한 매일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심판과 그 결과인 천국과 연옥과 지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주로 이야기하지만, 각자가 죽은 뒤 곧바로 자신의 행실과 믿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죽자마자 사심판으로 각자의 영혼 안에서 영원한 값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각 사람의 영혼은 정화를 거치거나(연옥),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천국),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지옥).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의 삶이 저물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21~102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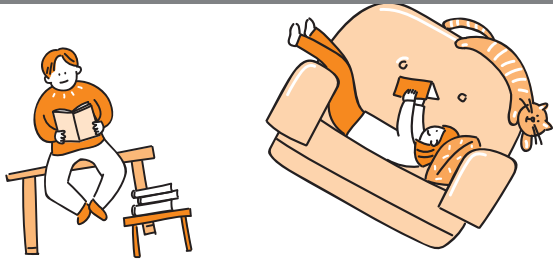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과(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완전히 정화된 사람들**(연옥의 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들은 성삼위와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과 모든 복되신 분들과 함께 친교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당신 나라로 불러 모으시려는 하느님의 뜻을 계속 기쁘게 수행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24, 1029항).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죽었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나 하늘의 기쁨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선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0항). 교회는 이러한 정화의 과정을 연옥이라 부릅니다. 우리말에서 연옥은 지옥과 동일하게 감옥을 뜻하는 ‘옥’ 자를 사용하고 정화하는 불로 설명되기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의 고통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 연옥과 그 어떤 가능성과 희망 없이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은 그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1항). 오히려 연옥은 영원한 구원의 관점에서 천국의 예비 단계로 보아야 하며 이런 점에서 연옥보다는 연국 또는 연당 같은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 과정이기에 분명히 참고 견딜 수 있는 희망 속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오래전부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관습을 갖고 있었고, 우리의 기도가 특히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특히 미사 성제를 비롯하여 자선과 대사, 보속을 권고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2항).

지옥은 하느님과 또 복된 이들과 이루는 친교를 결정적으로 ‘스스로 거부한’ 상태를 일컫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3항).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벌의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4항). 지옥의 주된 고통은,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며 ‘영원히’ 이어지는 상태이므로 그 어떤 변화의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5항).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성경이 전하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들은 악인들을 단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기보다는 그 누구도 영원한 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절절한 호소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6항). 이러한 회개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하느님께 반항하여 죽을죄(대죄)를 짓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이들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7항).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죄를 늘 성찰하며 고해성사를 통하여 죽을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 은총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417~424쪽, 1020~1037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신간 도서 소개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는 <고해성사란><성령은><성체 조배란><기도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간단명료하지만 본질적인 의문들에 답을 제시해 주는 안내서이다. 평신도 입장에서 쉽게 서술하여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

미셸 존스슈뢰더/바브시스키에비츠 지음 · 각 7천원 · 성바오로출판사



자녀 축복 노트

일상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치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자녀가 순간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행복은 무엇인지 성찰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을 엮었고, 기도예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에 묵상하면 좋을 주요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다. 자녀와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드리도록 도와준다.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24면 · 1만2천원 · 가톨릭출판사

침묵 그리고 은총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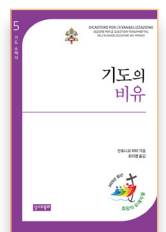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여러 작품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엮었다. 하루를 어떻게 주님의 은총 안에서 보낼 수 있는지를 성녀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묵상하도록 이끌어 준다. 성녀가 건네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더욱 풍요롭게 변화될 것이다.



에디트 슈타인 지음 · 120면 · 1만3천원 · 가톨릭출판사

기도의 비유

이 책은 '비유'를 사용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의 독창성에 시선을 둔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일상'을 선택하셨다. 기도예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은 기도 방법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안토니오 피타 지음 · 132면 · 1만원 · 성서와함께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의 묵상 에세이. 장마다 작가의 사색과 경험에서 얻은 삶의 깨달음이 짙게 실려있고, 성녀 마더 데레사의 말씀이나 삶의 방식을 시사하는 시구도 인용되어 있다.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품미가 문장 안에 녹아들어 진정성 있게 마음을 두드린다.

와타나베 가즈코 지음 · 164면 · 1만2천원 · 바오로딸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복음서의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을 따라가며, 우리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에세이 성격의 복음 묵상집이다. 복음서 곳곳의 표현과 행간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다.

에르메스 론키 지음 · 192면 · 1만2천원 · 바오로딸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교구장학회

2. 4.(화) 11시, 교구청 대회의실

사제평의회 · 참사회 및 인사발표

2. 4.(화)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견진성사

임당동 본당: 2. 9.(주일) 10:30

재무평의회

2. 13.(목) 16시, 교구청 대회의실

양구 본당 사목 방문

2. 14.(금)~16.(주일)

교구 직원 채용 공고

근무지: 춘천교구 예수 성심 영성원

모집인원: 약간 명

업무내용: 주방, 청소 및 빨래, 시설 관리

제출서류: 이력서(경력사항 상세 기재), 본

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관련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

함),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개별통보)

제출기한: 2. 28.(금)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춘천시 공지로 300 천주교 춘천

교구청 교구 법인 담당(우편번호 24338)

☎ 033-240-6022, 6029 문의

본 당 알 림

죽림동성당 “주일밤미사 · 평일낮미사”

주일 밤: 매 (주일) 21시

평일 낮: 11시 연중무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교좌 죽림동 성당 상설 고해소

매 (목) 14:00~17:30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임당동 성당

교구 제단체 · 모임 · 미사 · 피정 · 교육

신학생 방학 마무리 모임

2. 3.(월)~4.(화) 가톨릭회관

예비 신학생 동계 피정

2. 4.(화)~6.(목)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
교 (배론성지)

총구역장 연수

2. 8.(토)~9.(주일) 계성푸른누리수련원

예비 수도자 동계 피정

2. 17.(월)~18.(화) 가톨릭회관

신청: 2. 7.(금)까지, 본당 사무실

☎ 033-240-6078

2025년 1학기 ‘여정’ 수강자 모집

과목: 마르코복음 / 기간: 2. 24.(월)~6. 17.(화)

비대면: (월) 19~21시 / (화) 10~12시

대면: 교구교육원 또는 가톨릭회관 (수) 19:00~
20:40 / 포천 (금) 10:50~12:30

신청: 본당사무실 또는 개인

수강비: 비대면 3만원 / 대면 4만원 / 신협

131-010-215773 재단춘천교구천주교회

마감: 2. 12.(수)까지

☎ 033-240-6020 성경사목부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2. 9.(주일) 14~16시, 퇴계 성당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2. 15.(토) 10~13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 010-3669-2076

포콜라레 운동(국제마리아사업회) 생활말씀 모임

홍천 여성: 셋째주 (수) 14시, 성산 성당 ☎

010-8635-9177 / 화천 여성: 셋째주 화

천 성당 교중미사 후 ☎ 010-4131-3241

학생 및 청소년 ☎ 010-5178-3686

강릉아산병원 원목실

위치: 신관 지하 1층 / 미사: 매 (토) 14시,

신관 5층 2세미나실 ☎ 033-641-8388

청년성서 9차 창세기 연수

2. 7.(금)~9.(주일) 가톨릭회관

사랑의 기쁨 2기 청년 모임

2. 8.(토) 10:30, 교구청

꾸르실로 봉사자 연수

2. 8.(토)~9.(주일) 켄세마니피정의집

2월 카나 혼인 강좌

2. 8.(토) 18:30, 입암 성당,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활환경부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위한 146차 ME 주말

2. 14.(금)~16.(주일), 가톨릭회관

대상: 결혼 3년 이상 부부, 비신자, 신부님, 수도자

신청: 본당 사무실, ME 대표부부

☎ 010-5579-6826, 010-8242-8018

묵주기도 100단 봉헌 및 감사 미사

2. 7.(금) 19시, 화현 이벽성지

오시는 길: 화동로 447(이벽 유적지)

☎ 031-531-2234 화현 이벽 성지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2. 11.(화) 10~17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1학기 명도학당 대면 · 비대면 강좌 안내
-은총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

강사: 기정만 에제키엘 신부 / 박종수 요한

세례자 신부 / 특강: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

강의기간: 3. 10.(월)~5. 19.(월) 10주

접수기간: 2. 2.(주일)~2. 23.(주일)

대면(월 19시, 가톨릭회관), 비대면(유투브) 병행

수강료: 2만원(신협 131-018-771156 평협)

신청: 본당사무실 (대면, 비대면 반드시 구분,

개인 신청시 010-6318-6002로 문의 후 카

톡 또는 문자 접수 가능)

할인특전: 성직자, 수도자 면제

☎ 010-6318-6002 문의 춘천평협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 · 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 · 이은경 테오도라

봄내베이킹

플라워 케이크 주문 제작

강습, 민간 자격증

시청길 10번길 9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 · 전정구 베드로

일 반 알 림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일시: 3.1~3./3.8~10./3.13~16(추자도)/3.18~20.
3.23~26(추)/3.29~31./4.1~3./4.5~8(추)/4.10~2.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 2. 14.(금)~22.(토)
3. 14.(금)~22.(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성경공부
원서: <https://uus.pauline.or.kr/> 2. 28. 마감
☎ 02-944-0819~23, 010-5584-8945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34차 가톨릭춘천신협
정기총회 안내

일시: 2. 7.(금) 14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제34차 정기총회에 조합원님을 초대합니다.
조합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상장례지도사학교(봉사자, 국가자격취득)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 8.~5. 17. 매(토) 9~18시
자격증반(300시간): 3. 8.~11. 1. 매(토) 9~18시
장소: 의정부 교구청내 신앙교육원&대회의실
☎ 031-874-6272 cafe.daum.net/c-sjr 참조

예수회센터 봄학기 동영상 강좌/3월 개강

-마태오의 예수 이야기: 토라, 제국, 하나님의 나라: 박상훈 신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3: 송봉모 신부
-꿈-하나님의 귀한 선물: 홍기령 교수
-단테<신곡>지옥편: 배신과 우정: 김산춘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해설: 주원준 박사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kr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4. 8.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5. 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60만원
6. 3. 초기교회 발자취(조지아, 아르메니아)(10일) 470만원
7. 4. 성모 발현성지 4개국(12일) 56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2일>

25년 3. 30. / 599만원(+2100유로)예정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catravel.co.kr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3.17~19./3.22~24./3.28~30./4.2~4.
성지순례: 3.1~4./3.9~12./4.12~15./4.27~30.
☎ 02-773-1463, 064-756-6009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때: 3~11월(주일) 16~18시 (12만원x3회)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 010-4598-6912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접수: 11. 11.(월)~25. 2. 14.(금)
☎ 02-745-8339 ci.catholic.ac.kr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
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하는 프로그램
일정: 3. 17.~26./4. 21.~30./5. 12~21./6.
9.~18. (10일, 100만원)/장소: 홍천/대상: 60세 이상
☎ 010-7451-9707 문의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02-778-8565

4. 21. 특선이탈리아 11일 (499만원-대한항공)
4. 28.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39만원)
5. 9.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5. 12. 산티아고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479만원)

가톨릭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25학년도 봄학기 수강생모집
1. 20.(월)~2. 14.(금), 커피바리스타 자격증과정
등 37개 강좌 / 접수: 가톨릭관동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lifelong.cku.ac.kr 접속 후 수강신청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3. 18.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495만원)
4. 22./5. 13.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5. 19. 멕시코 과달루페 중남미 3개국 13일
6. 5. 올트레야 로마 세계대회 참가단 12일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후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벌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506-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홍승후 켄마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
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흔 느헤미야

대건 건설·조경·중기

각종 굴삭기, 덤프 임대
토목·택지·조경 공사·객토
☎ 010-5361-5641
한성근 대건안드레아·최순화 가브리엘라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야